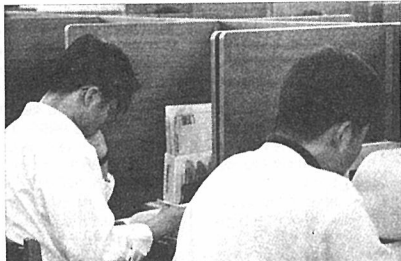


책도 없는데, 공간부족이 웬 말

도서관 수용인원 · 장서 상태 한계 넘어, 예산관리도 미흡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의미라면, 활동의 주체인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인 도서관이 잘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 도서관은 시설 낙후, 공간협소, 장서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학교측의 지원부족으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지침위원회(이하 도서관위)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후 앞서가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활동 중이다. 현재 입학정원은 개관 당보다 약 70% 늘었고, 대학원 824명이 늘어났고, 40만 권이 수용 가능한 도서관이 이미 4개 권이 들어갔다. 도서관은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방화벽에 도서관과 수차례 만났고 공간 재배치를 요구해 왔다. 이를 통해 협의를 마친다고 이번 주부터는 협의안을 놓고 관련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학내에 따르면 현재 참고도서실, 열람실을 합쳐 1층의 일반자료실 2층으로 옮겨 전체를 일반자료실로 쓰고, 2층의 참고도서실 1층으로 옮겨 1층은 비어있도록 재배치한다. 이를 통해 1.2층 보비를 도서관에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간부족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며, 직원들이 2개의 창에서 일하게 되고 인원효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간 재배치 후에도 5년 후에는 도서관 화상실을 개조할 수 있는 건축하는 등 근원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20년 전에 지어진 우리학교 도서관은

관은 겨울이면 파이프가 얼어 물이 세는 등 시설이 매우 낡았으며, 2000년경의 열람실에 화상실이 2개뿐이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이 학교 도서관 장서수는 현재 서울, 용인 합쳐 70만 권으로 타 대학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행본의 경우 도서관은 학생, 교

수가 신장하는 신장도서관과 수석과 예산

입의 구입하는 참고도서로 바뀌는데, 신장도서관은 몇몇의 사람만이 신장하여 구입해 관으로 문제되고 있으며, 참고 도서 구입은 기존 없이 이뤄져 학생이 정작 필요로 하는 정공본이나 정공 관련도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원서의 경우도 네덜란드, 인도어 원서는 작년 한해 동안 17만 권이 넘는 등 외래서는 이들에 걸맞은 도서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원 총무부장 이호영(권·34)은 "최근 원서가 많이 부족하고, 신장해도 6개월이 넘게 걸려 교수들에게 책을 빌려 대본을 써서 사 용한다"며 "대학원생의 대부분은 타 대학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의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간재배치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도서관의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간재배치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도서관의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간재배치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웅인배출터 학자요구인 분석

"학교발전도 우리의 투쟁이다"

웅인배출터 학생들의 특목급수업부담이 학교발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로, 웅인배출터 학생들에게 가장 주목되는 '교토문예'를 살펴보면 현재 모한-관산간을 왕복하는 '학내 셔틀버스'가 운행중이다. 15분 20분(소시간 15분)으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운행하는 이 셔틀버스는 모한과 학교 간, 학교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가 멀어 이동시 불편을 느꼈던 웅인배출터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모한 인근 사거리를 정류장으로 연속 최하자는 '셔틀버스'는 현재 1대가 운영중인데 웅인배출터 총학생회측은 "셔틀버스를 운영해 본 후 필요하면 증차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교통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경관-사당-방방'을 잇는 신노선을 유지하고, 사당에서 운영되는 지입대 버스를 '방방-학교' 직행노선으로 투입시킬 것에 대해 학교당국과 버스사의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현재 서둘러 환경문제와 교통문제에 이유로 신노선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로, '웅인배출터' 설계작업이 시급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이번 학기 내내 2학기까지 조감도 작업 및 설계와 건설사와 선정과정을 진행하고, 내년 3월

에 착공하여 2년 공기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총장과 합의했다.

셋째로, 단행본 복지문제가 개선된다. 공대는 '사취'에 방종에 설치되어 현재 사용중이며, 자연대는 일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PC실을 마련했다. 동문과 총학생회의 요구로 생긴 '학생회관 PC실'은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또한 개강 후 35개와 각 과방에 새로운 비품(책상, 의자, 정각, 케비넷 등)이 지급되며, 각 건물과 PC실 연결문제가 합의되었다. 도서관에 개인사물함을 추가, 확대설치 된다.

넷째로, 동구에서 단행본까지 합의했다. 동구에서는 학교로부터 공식적으로 '단행본' 합의를 얻어내 내년부터 서대내의 노이과가 동구에서부터 이동, 서양대학과 교육부가 발표한 '두뇌한국21' 사업 선정 대학을 보면 특정대학과 지방공립대학에서 대부분을 독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서대내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에서 12개 분야에 신청해 모두 선정되어 이후부터 900억 450억 가량을 가져가는 등 2000억 450억 가량을 가져가려는 예상이다. 또한 지방대 육성에 지원되는 500억 역시 공공대학에 지원될 것으로 정부의 '두뇌한국21'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서대내와

일부대학만 집중육성하는 '두뇌한국21'

비선정대학은 지원줄어..., 인문분야 냉대

정부에서 이번에 추진한 '두뇌한국21' 사업은 올해 교육개혁 5개년 시안과 함께 추진한 교육정책으로 2007년까지 매년 2000억에 모두 1조 4000억을 투입해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우수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두뇌한국21' 사업은 우수한 대학을 더욱 우수하게 하겠다는 소수대학육성책, 지역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대학을 더욱 육성하겠다는 계획들에서 소수 사립대학과 지방 공립대학에 오히려 지원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지어 이번 '두뇌한국21' 계획에는 가장 많은 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대내 교육수준이 대학의 자질을 시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었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두뇌한국21' 사업 선정 대학을 보면 특정대학과 지방공립대학에서 대부분을 독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서대내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에서 12개 분야에 신청해 모두 선정되어 이후부터 900억 450억 가량을 가져가는 등 2000억 450억 가량을 가져가려는 예상이다. 또한 지방대 육성에 지원되는 500억 역시 공공대학에 지원될 것으로 정부의 '두뇌한국21'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서대내와

지방공립대학에 지원되어 이것은 일부 대학에 대한 지원만 늘어선 셈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시립대학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것에서 상당한 것이 일어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번 에 서울에서 지원받은 연간 900억의 예산은 우리학교 서울과 용인 양캠퍼스와의 일원 예산인 780억보다 많은 액수이다.

과학기술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 학교에서 통변 역으로 특목화되어 지정받지 못한 지원 받 는 액수는 연간 100억 원이 훨씬 적다. '두뇌한국21' 정책에서 과학 기술분야에 투자의 비율은 900억 원의 반면 인문 분야에 지원되는 금액은 100 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하

는 대학에게 교수연구직 평가제, 연봉제, 계약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조건은 교수의 반발이 거세져 결국 없애기로 하였으나 실제 과학기술분야에 선정된 대학이 모두 교수연구직 평가제제를 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강제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되었다.

이번 '두뇌한국21' 계획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반대학 예산을 아끼기'라며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두뇌한국21' 계획 자체가 우수대학을 선정해 집중육성한다는 목적이지만 그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의 대학이 오히려 쇠퇴할까 우려가 있다.

류석성 기자

한미 투자협정, 불평등 진행

경제 전반 잠식하려는 미국의도 막아야

비상사태시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셰리프'제도 폐지와, 미국기업의 외환거래를 위한 자유화, 미국투자자가 한국기업에 불만이 있을 경우 바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원이나 방송 등 특정산업 경쟁력의 국적을 제한한 조항을 모두 폐지하도록 한다."

현재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한미투자협정'의 주요요지다. 한미투자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감대중 경전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정도로 '합속' 나오는 불평등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다.

"리처드 피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국과 본격적인 통상협정이 일방적으로 열리는 '선전포고'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는 두 나라간 협상을 일방적으로 지목하고, 미국의 대(對韓) 통상정책의 끝단을 밝히며 미국의 정책은 이미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고했다. 또한 피셔는 포항제철, 한국전력, 대우산업사 등을 꼽으면서 미국인 자본현존을 늘려달라는 게 요구사항을 조조조로 내걸었다." (99.2.9일 차 매일경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읽는 피셔의 방한이 있었던 을 초 한 일간지에 실렸던 내용이다. '선전포고'에 대한 후 현재까지 불평등하게 진행되는 '한미투자협정' 합의안은 구체적인 조항으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물론, 요르단 10여개국과 협정을 맺으면서 국가별 차이를 좁혀줄 인정하지 않고 관철시켜온 '비교'의 표준이 셰리프'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한미투자협정에도 강요되고 있다. 만약 이 요구가 관철되면 외환거래가 전체적인, 정정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미국의 외환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비교'의 외환거래가 원천 자유화된다. 나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후대 대우 규정에 따라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도 이 항목이 적용, 외국자본이 한계선에 유출되는 사태를 막을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국제투자금융자본'이 한계선에 빠져나갈 때 미국이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에 이르기 위한 의욕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보존'은 한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에 대해 일방적 국산 의무사항 등을 폐지하도록 하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우발로 다른 투자규약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양국 기업간 상호 불평등을 강요하고 있다. 나아가 '외국기업도 자본의 제한없이 기업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전히 잠식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농수산품 시장 개방방식의 문제 역시 국내경제와 민생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일례로 미국은 2001년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동시에 '고도'대시장도 완전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인들의 '생존권' 투쟁에서 '반미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크린 테러 문제는 한미투자협정의 여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회,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한미투자협정 반대운동으로 확산됐다. 또한 현재 북 국민적인 한미투자협정반대운동(미국상품 회색, 미국상품 불매운동)이 전개되는 등 광범위한 반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감대중 경전은 국민의 생존권과 자국의 이익을 옹호 넘겨주는 외세의존적인 경제정책이 전 국민의 분노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외국어연수원생모집

<아! 10억 학자금>

- 모집학과**
*일본어, 대학(원)생 영어, 일본어, 중국어, 노어, 미어, 베트남어, 이태로어, 고려 어 24개 외국어
- 교육기간 및 시간**

과목명	수업시간	교육기간	비고
일본어연수	월요일~토요일	1999.10.1(월)~11.15(월)	주 4회 수업
대학원과정	월요일~토요일	1999.10.1(월)~11.15(월)	(월, 화, 목, 금)
- 등록금 및 수업료**
가. 등록금: 1999. 9. 7일까지 전액 및 50% 납입 가능
나. 등록금: 수급자(학부생) 50만원, 대학원생 100만원
다. 지원자: 1999. 9. 7일까지 전액 및 50% 납입 가능
- 반면정시(Level Test)**
가. 일시 및 장소: 1999. 9. 22(수) 14:00~15:00, 일본어 15:00~16:00
나. 외국어에 관한 학력 시험
라. 문의처: ☎ 961-4174, 962-2119, FAX: 962-0575
홈페이지: http://www.hufs.ac.kr

'99 후반기 군장학생(학사)모집

- 개요**
일차로 100명 정도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2차로 100명 정도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3차로 100명 정도의 지원자를 모집한다.
- 모집 대상**
1. 2학년 재학생 학생
- 모집/선발일정**

구분	모집일	선발일	합격자 발표일
후반기	10.15~10.20	10.25~10.30	11.5~11.10
- 지원서 교부/접수 장소**
* 학내인 학생: 1999. 10. 15~10. 20
- 지원 자격**
1. 2학년 재학생
2. 학내인 학생
3. 학내인 학생
4. 학내인 학생
- 선발요건 및 배점**

구분	수능점수	학내시험	합계
후반기	100	10	110
- 지원서 처리(사서)**
1. 지원서(사서) 접수
2. 지원서(사서) 접수
3. 지원서(사서) 접수
- 서류심사**
1. 지원서(사서) 접수
2. 지원서(사서) 접수
3. 지원서(사서) 접수

'99년도 웅인캠퍼스대학직장예비군 기본교육 훈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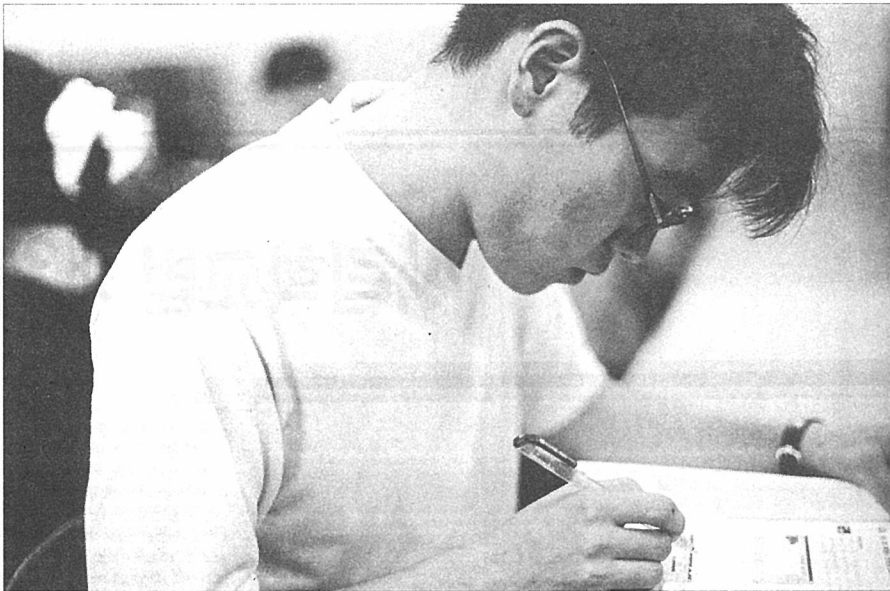
1999년 9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주간 실시한다. 웅인캠퍼스대학직장예비군 기본교육 훈련 안내

- 교육대상**
1. 웅인캠퍼스대학직장예비군
- 교육장소**
1. 웅인캠퍼스대학직장예비군
- 교육기간**
1. 1999. 9. 10 ~ 11. 10
- 교육내용**
1. 웅인캠퍼스대학직장예비군
- 교육비**
1. 웅인캠퍼스대학직장예비군
- 문의처**
1. 웅인캠퍼스대학직장예비군

특별장학금 수혜신청 안내

우리 대학에서는 수혜자 지원, 심의, 지급 등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 대상**
1. 수혜자 지원, 심의, 지급 등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1. 수혜자 지원, 심의, 지급 등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 지원자격**
1. 수혜자 지원, 심의, 지급 등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1. 수혜자 지원, 심의, 지급 등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장소**
1. 수혜자 지원, 심의, 지급 등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 문의처**
1. 수혜자 지원, 심의, 지급 등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 독학년이 쉽다. 한 학기를 넘겨 두고 휴학해 취직준비를 하는 도서관파. "졸업을 해도 만족할 만한 직장을 못 얻으니 차라리 마지막 남은 한 학기를 더 공부해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게 낫겠다."



▲ 한 학기를 실력을 쌓는 데 투자하자. 학원생을 필히 거는 학생파.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지만 의대에 다닌다는 게 무척할 정도로 교육교재가 충분해 수업을 따라가기 쉽다. 한 학기 실력을 쌓고 학교로 돌아가겠다."

▶ "휴학생 환영" 아르바이트. 휴학생이 늘어나는 사회적 징표



채우기 위해 비우는 휴학생의 삶

경기가 틀려 가고 있다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세명 중 한명이 휴학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며 개성이 된 후에도 과방의 모습은 더 한산해 보인다.

무엇었던 여름방학을 보내고 학교에 나오보니 인보이는 얼굴이 많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경제난, 취업난으로 늘어난 휴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휴학한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휴학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업자가 되느니 차라리 학생신분으로서 실력을 쌓으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게 맘 편하고 집에 눈치도 덜 보여서 휴학했어요."라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두명만 아니에요. 답답해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아요."라고 김지원(인문·철학 4)군은 호소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심각

하게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청년실업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지난 학기 용인백화점에서 종로공작감을 위한 투쟁이 활발히 진행됐다. 학교측의 회유와 협박 등의 강경대응으로 현재 공작감의 수는 182명에서 90여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종로공작감에 대한 공감대는 높다. 비한 종로공작감을 마련하자는데 보탬은 못 돼드리고 자율적으로 남부여 할 기성회까지 내는 부당함을 안

겨줘야 하는 부모님, 휴학을 하고 대입에서 진화교원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받고 있는 정지혜(통양·타기3)양의 모습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주위 친구·선배·후배의 얘기가. "학기중에 제대로 하지 못한 전공공부를 하고 학원도 다니며 실력을 쌓으려고 휴학했어요. 지난 학기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게 반성이 돼요."라고 박미경(사상·스

에 취업을 앞둔 4학년은 아니지만 앞날을 준비하며 내심있는 생활을 하려고 잠시 학교를 쉬는 의대인도 볼 수 있었다. 세명중 한명이 휴학하는 현실을 개인적인 시선이나 사 사회적 차원으로 사상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휴학하는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충분한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재정확보와 다양하고 직접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름 총 가입자수(99.9.3. 현재)

1 2 1 6 5 0 3

신청서 비치



▶ 이 나이에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게 등록금을 스스로 벌려는 아르바이트파. "부모님이 등록금 마련하기가 힘이 든다고 보니까. 한 학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도 벌고 사회경험도 해야겠다"

제 작

사진부 차장
정효정

우리 학교도 TTL 통화자유지역!

전국 410개 대학교 TTL통화자유지역, 10초에 9원!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잘 다니는 곳에 통화료가 엄청나게 할인된다?
TTL지역 할인요금은 전국 410개의 대학가를 포용한 압구정, 강남역, 신촌 등
420여개 지역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10초에 9원! 최대 2곳까지 O.K!
폰에일 서비스 월 100회, 마이텔 서비스도 월 2회 공짜!
어때? 이제 학교생활이 더 재미있지 않겠지?

깜짝 이벤트1

세명대 문예제 시상식!!

TTL상증서, 4대 문예발상 시상식 대대!

- 행사대상: 한 주에 한해, TTL 7개지점 2인 이상으로 구입한 월 10회 이상 사용 70만 원 이상 포함
- 행사내용: 2명 이상의 한 팀이 TTL로라와www.ttl.co.kr에 등록하면 100만 원의 01상증서를 드립니다.
- 도한 참가한 팀 중서 4등을 주심, 세계 4대 문예발상 시상식(인문·철학, 통양, 중국, 철학, 인문)의 인디스강, 예스포터(인문)의 유로트레스강에 보내 드립니다.
- 상품내용: 1등 상: 100,000원, 2등 상: 50,000원, 3등 상: 20,000원, 4등 상: 10,000원, 5등 상: 5,000원, 6등 상: 2,000원, 7등 상: 1,000원, 8등 상: 500원, 9등 상: 200원, 10등 상: 100원
- 행사기간: 99.9.1(수)~99.9.30(목)
- 접수기간: 99.9.1(수)~99.9.20(토)
- 문의처: 02-3452-1021/1022/1023
- 문의처: 02-3452-1021/1022/1023

깜짝 이벤트2

7월 2주에 한해! 7월 2주에 한해!

나만의 핸드백서비스

TTL 전용휴대폰을 구입할 때 내 손안에
요것보다 더 고풍하고 양조한
휴대폰은 없나!

MC-8000(2.0인치)

19,000원

T22N(WG)

29,000원

SCH-7300(2.0인치)

85,000원

TTL

스무살이 011



6·7

1999년 9월 7일 744호

주 제 기 획

사립학교법

대학의 민주성 보장해야...

사립대는 전체대학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의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이 대학개혁을 추진하려면 다각을 장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원상복구하고 독소조항을 없애고 민주적으로 재개정 해 사립의 부정·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또 현행 사립학교법을 재단과 대학 운영에 이사장과 그 친·인척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사장 친인척은 총장에게 될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총장선출제 대학 구성원에게 넘겨 주어 직선제로 선출할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 임명권은 총장에게 주어야 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권한 역시 대학의 총·학장과 교수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교수채임용제'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 이사장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빼 공직자 재산을 공개할 때 이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법인과 대학의 재정관련 서류를 전면 공개하여 사립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사립학교의 조항 신설도 빠놓을 수 없다. 재단의 간섭이 배제된다면 재단과 대학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재단을 대신할 학내 소수 기득권 집단에 의한 전횡과 비리가 저질러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교수협의회와 학생회 그리고 직원노조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고 학원 3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이름뿐이 아닌 실질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관계법 개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에서 전 국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우리학교 김태 정(일본어)교수는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때에는 이 정도로 개악되지는 않았다"며 "우리 나라 교육정책은 퇴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립학교법 개악

조 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6조 제2항	학교법인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 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계획 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제21조 제2항	이시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훈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친의 3촌 이내 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그 정수의 5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3분의 1.....
제21조 제4항	감사는 감사상훈과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친의 3촌 이내의 혈족관 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제25조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손보 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손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관계인의 청구 또 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손보 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학 교법인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손괴 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 시이사의 선임에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 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9조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가 될 수 없다. 1. 금지신자 또는 한정신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삭제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원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근무기 간·급여·근무조건, 임 직 및 성과인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 는 국·공립 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학교법인(이하 재단)은 사립학교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 의 경영에 중립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대다수 재단 이 토지, 임차 건물, 예금, 주식, 특허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데 기존에는 사업의 종류와 계획, 변경사항 등을 교육부에 신고 해야 했다. 이는 대다수 재단이 수익사업을 학교운영을 위한 사 업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 및 임차로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익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조치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폐지 됨으로써 사립의 수익사업에 대한 외부의 통제는 원천히 사라졌 다 할 수 있다. 때문에 대다수 사립대은 기존의 방식과 같이 교수보다는 자신은 도태, 수익은 없는 사업 토지 및 임차의 경우 명 같은 계속 상충되거나 현실적인 수익금이 없어 재단운영 금을 낼 수 없으므로 전횡하는 사태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 인다. 즉 현재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은행예금과 저 인출을 토지나 임차로 전횡하여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사립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 없어 재단운영에 없다'고 말하는 기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

제49조

연령이 신장법에 따라 그 동안 '학원징계'가 될 때까지 임기 를 제한 받지 않았던 관선임시(이는 이제 3년(1회 연임)할 경우 4 년) 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 재단측 인사들이 학 교로 되돌아오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본보 제2호 1면) 학생회, 교수, 학생, 직원들의 퇴진운동으 로 물러났던 상태라면 구 재단이사들이 재단보존소송을 벌 이다 대법원으로부터 '불가 명령'을 받지 관료적 교육부장관과 학생회 측의 교육위원장을 통해 사립학교법을 개악했다는 항의 의 소문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 조항 신설로 관선이사 교체까지 학내구성원들은 긴장 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대학도 구 재단측 복귀 반대' 를 외치며 자는(재)학 수일과 중간고사 거부, 그리고 총파업 투 정을 조장하다 반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학교법인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형제들 임시이 사가 재직하다 학교가 정상화되더라도 공식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것마저 현재 재직중인 관선(사)의 임기를 통해 10월 31일로 한정 시킨다는 '부적 조항은 구 재단측을 입지를 넓혀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의 활동 의지 를 막고 현재 학교법인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

제53조 제3항

개별 사립대학에서 추진중인 교수제개혁을 명문화한 것으로 사립대 교수들의 계약제 임용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모는 교수제 개혁 시행할 만한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과 교수제개혁이 보여주듯이 사립 재단에 의해 악용되었을 경우 교수들의 신분불안(가중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우려)을 낳고 있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수임용개혁이 보아도 불 편한 논문을 썼는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등 교수들에 대한 일각 평가가 보다는 단순한 양적, 획일적인 평가로 저평가 되고 있는 데에 대해 교수들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학력, 인격에 좌우 되어 교수를 임용하는 현실에서 교수제개혁을 시행한다는 것은 재단과 학생간의 '자기자랑 상'을 더욱 노골화시켜 줄 수도 있다. 직원 역시 그 동안 친인척들이나 측근을 요직에 채용했던 사립 이사장들의 권한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신분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NN

나우누리 N generation internet
N ownuri
http://www.nownuri.net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전국 교원단은 지난 8월 12일 단식농성까지 돌입하여 교육법 개정까지 무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DJ 사학개혁 물 건너 갔나?

제53조 제4항

제53조 제4항의 신설은 사학이사장들이 권한을 일원화할 때 교원 인사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독단과 권한을 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 인사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이사장인 상황에서 이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새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 역시 이사장의 영향권을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은 사립학교법 개악 비판에 따른 면책 개입이라는 의혹을 받기까지 충분하다. 이미 전 우익 학교 사법인과 교수임용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수 임용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항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원 인사에 대한 권한을 이사장 개인에게 주고서 미봉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임용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교제도가 대국구원들의 의견 수렴도 되지 않는 채 총장이 전체교수구원들에게서 '개인이사회의' 조종을 받아 내부규정을 정하겠다는 비판적 발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3항 교원징계 규정이 인가제에서 보고제로 바뀐다. 이사장 이임제에 따른 징계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교원의 신분 불탄 심의와 또 다른 학내 분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인가제로 되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대다수 대학에서 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재단이 일방적으로 교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 민주화를 약화하는 차이라 할 수 있다.

제70조의 2 제1항

학교가치를 이사장 마음대로 개편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 대다수 사학에 이사장들은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동의 없이 내면 내용의 정당한 평가조차 없이 일방적인 행정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절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학교도 효율적 업무 이행을 위한 명분으로 부서별 통폐합이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조항이 악용된다면 행정부 통폐합이나 폐지를 통해 사학 내부의 전체를 조정하고 시킬 수도 있다.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의 2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명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제59조 제3항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2항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제70조의 2 제1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원·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 제2호	제6조 제3항의 공고를 타인하거나 또는 부당한 공고 할 때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 한 때
제74조 제1항 제3호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목록 또는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와 타인을 타인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기재를 한 때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제74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4항 제3호·제4호(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타인하거나 부당한 보고를 한 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제74조 제1항 제6호	제42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8조 또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타인한 때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제74조 제2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자가 제54조 제1항의 규정외의 보고를 타인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4조 제1항 제호

제74조 제1항 제호-제74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문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학 부장·비리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가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재단에 치할 수 있는 과태료 법적 조항을 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교육부는 학내 학내나 같이 파벌의 문제점에 대해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을 "이름을 딱 붙여" 처벌을 함으로써 결과론만 가지고 처벌 유무를 판단해야 하게 됐다. 교육부가 이를 개정하면서 규제를 완화시킨 것 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책임이 적어진 규제 완화는 방종과 탈선을 불러일으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변천사

정치적 혼란기마다 손질 제정후 36년간 24번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을 위해 1963년 6월 2일 제정된 것이다. 그 후 2차례의 변화를 거쳐서 교원에 대한 처우나 재단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 사립학교법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킨 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이익을 위해 개혁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0년의 개정인데 3당합당으로 생겨난 민주당에 의해 사립재단의 이익을 받아 단독 처리된 법안으로 재단법인의 권한을 대폭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의미 있는 개정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1963년- 재단법인이 학교법인화할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 1972년- 사립학교 종류에 전문학교 추가, 학교법인의 감독청 조정
- ▷ 1973년 3월- 임원 및 학교장의 자격조건 강화, 교원 임용시 감독청의 승인 요건을 명문화
- ▷ 1973년 12월- 연금저축 등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지원 강화
- ▷ 1975년- 사립학교 교원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기간 부임제도 도입, 자위해제 제도 도입
- ▷ 1976년- 산업체에 종속하고 고등학교 설치 및 경영을 허용
- ▷ 1978년- 학교 법인의 재산 출연 및 기증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규정
- ▷ 1981년- 학교법인 관계자의 학교장 취임 제한, 교직원 임명권 및 예산권을 학교장에게 부여, 예산심의기구로 대학재무위원회의 건설
- ▷ 1986년- 대학재무위원회의 폐지, 이사회의 심의 의결권 폐지, 총학장의 취임 제한을 '대학설립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에서 '이사장'과...로 개정, 징계의 종류에 해임과 징직 추가
- ▷ 1990년- 학교법인 관계자의 대학기관장 임명제한 규정 폐지,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다관법인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학교장의 임명시 관할청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변경, 대학교의 임명권을 학교법인으로 귀속, 이사장의 친족, 혈족 참여비율을 1/3에서 2/5로 확대
- ▷ 1997년- 이사수를 7명 이상으로 결정, 이사의 교육 경력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 대학교의 해임시 법인의 의결정족수를 강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허용범위 확대
- ▷ 1997년- 해외의 학교법인 이사취임 가능 규정 신설, 학생수 적감에 의한 학교법인 해산 및 재산의 귀속 및 출연 가능 조항 신설, 고등학교 이하에서도 직무이탈로 결원된 교원을 보충시 기간제 교원 허용
- ▷ 1999년- 관선사 임기 조항 신설

정리 : 류재석 기자

분석 : 우혜나 대학부처장



강 모여봐 / 017로 모이면 좋은 일이 생겨!!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 -
10초에 최저 3원대, 낮시간 7원대! 이7동아리요금

누구든지 5명 이상이 모여 하나의 그룹을 만들면 멤버의 통화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제입니다. 기존 가맹점, 신규 가맹점 관계없이 5명 이상이면 언제든지 동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할인이 적용될수록 최대 4배까지 더욱 더 저렴한 산타페 요금제입니다.

각자 개인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도 가입이 가능하며 패밀리 요금과 중복 산택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고객은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입 및 가입 방법	신입 및 가입 방법	신입 및 가입 방법
신입 및 가입 방법	신입 및 가입 방법	신입 및 가입 방법

- 1) 동아리 올상시점 무료 제공
올상시점 제공, 제1차부터 제10차까지 무료 및 제11차부터 유료
- 2) SMS 종합서비스 무료 제공(월 3,500원 상당)
월간 종합서비스 + FAX서비스 + 관선 동시 표시전화 + 모바일 문자 서비스
- 3) 문자 생방송 서비스 무료 제공(월 2,000원 상당)
연세, 스포츠, 연예, 연예인, 뉴스, 증권, 기상, 날씨, 관광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SMS 문자 서비스

신입 및 가입 방법	신입 및 가입 방법	신입 및 가입 방법
신입 및 가입 방법	신입 및 가입 방법	신입 및 가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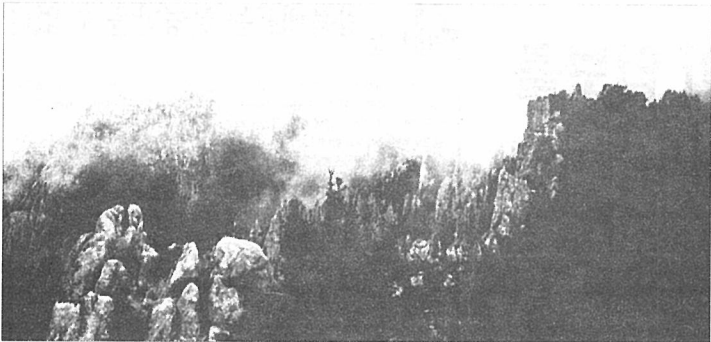
동아리요금 단상기념 대폭저

1월 ~ 12월 동아리 요금 100% 할인 혜택 제공
1월 ~ 12월 동아리 요금 100% 할인 혜택 제공

1월 ~ 12월 동아리 요금 100% 할인 혜택 제공
1월 ~ 12월 동아리 요금 100% 할인 혜택 제공

1월 ~ 12월 동아리 요금 100% 할인 혜택 제공
1월 ~ 12월 동아리 요금 100% 할인 혜택 제공

1월 ~ 12월 동아리 요금 100% 할인 혜택 제공
1월 ~ 12월 동아리 요금 100% 할인 혜택 제공



세네기의 금강산 여행기

스무해를 기다려온 나의 반쪽

택시를 타면 5시간도 안 걸릴 것을, 먼 공해 상을 돌아 10시간만에 도착했다. 잠에서 깨어 보니 이미 북한영토였다. 산박주위에는 투명한 해리가 수심에 떠다녔다. 금강산에서 내려 북한땅을 처음 밟는데, 땅에다 입맞춤했다. 눈물이 나왔다고 하면 좀 어색하지만 억울함때 느끼는 속마음, 그 느낌을 느꼈다. 그냥 특강은 휴고 바다. 북한은 공가에서 술을 쉬고 있었는데 어쨌든 술마침을 느꼈다. 이어서와 와보는구나. 어릴적에 부르던 금강산노래가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간단한 입국 수속을 마친 후, 관광버스를 타고 첫날 행선지인 구름폭포로 향했다. 가슴이 아렸다. 우리가 가는 길 양옆에는 굵은 철조망이 드리워져 있었다. 100m마다 서 있는 인민군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정에 휴정산에서 보았던 그 철조망을 오늘 다시 보게 되었다.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금강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분단된 조국을 원망하게 되었다.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바게트는 유적지는 신기해졌다.

담간지주와 부도만이 남아있는 절터. 625년 미군의 폭격에 의해 절터만 남아있는 초라한 흔적들. 이곳 북한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모습이 미국인들의 작품인 신기해졌다. 또, 큼직한 돌들은 일제강점기때 민족정기 말살 정책으로 쇠말뚝을 박아놓은 흔적도 볼 수 있었다. 일본과 미국, 그들의 흔적이 이 평산에 드리워져 있음을 무엇을 의미할까?

산에 오르는 중에는 여러가지 모습을 보게된다. 산에 새겨놓은 여러가지 문물들, 예쁜 나무들, 그리고 천왕비 등. 그것뿐 아니라 갖가지 회화한 모양을 가진, 더불어 재미있는 점성술을 가진 돌들을 만나게 된다.

아름다운 바위, 너무 깨끗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초록빛 계곡들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시원한 500ㄹ짜리를 마시는듯한 맑은 공기, 조금은 뿌르르한 말이지만 금강산의

중요로운 자태를 보며 잠시 모든 기억들이 나의 머리속을 뒤흔들었다. 분단의 현실까지도...

따뜻한 햇살, 금강산은 자신의 모습을 자꾸 감춘다고 하는데 오늘은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가 틀린 모양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바위들을 보면서 술쯤을 느꼈다. 자존심 세 금강산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직도 내 친구들의 발걸음 막고있는 검은 안개는 무엇일까?

이 장면을 나 혼자보지니 너무 아까웠다. 마음속에 고이 고이 간직하기 위해 두리번 두리번... 정말 유심히 보게된다. 그런데 유심히 보아야 하는 장면을 너무 많다. 어릴때 양산에서 사탕을 두개 들고 어린집 막아와 먼저 막아야 할지 몰라서 망설임에 처한 어린 풍경을 보아야 할지 고민된다.

정말 좋은 경치는 아름다운 산이 아니라 간간히 만날 수 있다는 우리 북한 동료들이다. 텔레비전에서만 들은 귀여운 사투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북한 동료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산행담에서 만난 북측 안내원은 너무 예뻐했다. 두근 두근 옆에서 서서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건넸다. 밝은 미소로 인사를 반긴채 여자는 수수한 옷차림을 한 '훈포'라는 23살짜리 아가씨였다. "김수경양 우매인가 보죠?" 나의 관광증에 쓰여 있는 소속을 보고 김수경선배를 기억해낸 모양이다. 입수경 산배는 북측에서는 통일외 상정처럼 여겨지고 있는것 같았다. "남자가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머리가 남자가 없는 모양이다. 훈화장이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난 특강은 질문을 몇번이상 받았다. 모두 북측 안내원에게서...그만큼 단련된 사회에서 살고있다고 할까? 아님 그만큼 순수하다고 할까? 북측의 웃음은 입을 훈화장은 통일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환해진다. 남에서도 통일 열기가 뜨겁다고 말하자 너무 기뻐하며 "이제 곧 통일 될거예요"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들었던 것만 만났을 때 재미있는 바위들이

정말 많다. 금 바위,투게 바위, 코끼리 바위, 꼬부랑 할머니 바위. 뾰족한 산 안에 신기한 모양이 바위들이 여기저기 숨어있었다.

북측 안내원들은 얼굴 표정에 모든것이 묻어났다. 긴 머리를 가진 남자들이 뒤통수의 놀라운, 통일을 열망하는 눈동자, 분개함에는 얼굴 표정에 묻어있는...숨결에는 감정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천천히에서 만난 북측 안내원 김동성군은 남북동지자 축구대회를 아주 큰 감명을 받은것 같았다. "남한이 경기에 졌죠?"라고 묻자, "이번 경기가 승패가 중요한 거요?"라는 의미깊은 말을 던졌다. 김동성군이 "금강산 관광객들은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나봐요"라고 말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예요. 집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김동성군은 내가 천천히에서 돌아갈때 마주까지 나왔다. 힘이 들어간 굵은 손으로 악수를 나누며, "박선생, 더 안가세요. 통일하면 봅시다."라고 안부인사까지 준다.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첫 미팅 나갔 때의 속소름과 설레임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나는 마치마일지도 모른다. 불안감때문인지 서로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다. 가끔 이해가 되지않는 문장들과 단어들도 이해하고 나아가려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 거기서 통일의 발식을 느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노력하는 것, 그것,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 같다.

자녀식사를 하고 있을때, 거대한 금강산은 조금씩 움직였다. 경전철을 빠져나가고 있다. 남북으로가 아니라 공해상으로, 또 다시 10시간의 철룡같은 이듬속으로 키를 틀리고 있었다.

서평 · '기차는 7시에 떠나네'를 읽고

'자아찾기' 행 7시 기차를 타고...

8월... 내게 있어서 반드시 어떤 행동이다 이 유가 붙지 않으면 건디기 어려운 시간이 8월이다. 귀족시대의 시집의 방향을 바꿔보고 싶고, 서랍 속 마디마디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정리해보고 싶은 8월이다. 삶은 시간이다. 시간은 삶이다. 이 둘의 실체가 서로의 존재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존재에서 두 가지가 튀어 파생된다. 우선 삶의 편에서 시간을 바라보자. 사람들은 시간으로부터 삶을 부여 받아 살아가다. 시간에 의한 부여... 즉, 삶이 그 자체만으로서가 아니라 시간과의 인연으로 생겨난 데에서 그것이 필연적인 제한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시간과 삶 사이에서 파생된 그 첫째는 삶의 뒤에 남은 그림자이다. 삶의 뒤는 과거이다. 삶이 시간과 반사되어 흘러 왔음을 증명하는 과거, 그림자는 '어떻게'를 보여준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시작하는 지, 어떻게 슬금슬금 되었는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자아를 찾는 과정이다."는 것은 물론 점을 찾을 수 없는 참 명제다." 이것은 사람이 라면 마땅히 본래 주어진 것이냐, 우리에게 내재된 기억할 수 있는 속명제이므로, 이 명제를 조금은 엄격하게 담겨라는 단어로 이해하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그림자 이야기를 해보자.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기차'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게 있어서 담겨가 신명속의 소설같은 기억으로 이루어졌다. 카타나행 기차가 8시에 떠나지 않고 7시에

떠나는 시점에서 '행'에게 기억이 놓인다. 감히... 그녀는 살아있다. 30대로 살아있다. 하진의 기억력은 바비런 것일까? 그녀는 20대 없는 30대만을 살아있다. 그림자가 끊긴 채로 말이다. 그녀는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기억을 찾아간다. 훼손된 기억에서 그녀가 발견하게 된 것은 소설의 재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차'는 7시에 떠나네'라는 과거의 한 단편이었다. 한참을 몰아 두었던, 상실한 채 30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늘 훼손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볼 수 밖에 없었던 피살아난 마비된 기억력, 파생이라는 결코 쉬울 수 없는 고된 그녀의 자아찾기에서 작가의 묘한 설정을 느낄 수 있다. 한 가지는 하진이 한 자아에서 있는 나이다. 즉, 20대를 보지 못하는 30대의 사람, 그리고 20대에 자신을 시도 한 그녀의 조카 미란. 하진에게 있어서 반드시 찾아야 했던 기억이 20대이고 그녀가 미란의 머리를 직접 감겨주고, 정성껏 보듬어 주고, 기억을 찾는 여정에 미란과 동행한 점은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20대가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삶의 뒤에 그림자가 놓여 있다면 삶의 앞에는 삶과 그것을 바추는 시간사이의 공간의 여지가 있다. 미래라고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 이로써 삶과 시간의 존재가 파생시킨 그 두 번째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소설 속에서는 작가가 훼손된 자아를 찾는 주인공에게 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인들에게도 공간의 여지를 갖

게 해줌으로써 결말을 맺고 있다. 이는 결말에서 인물들이 사립이나 꿈을 갖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지극히 희망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기억은 내 앞에 놓여진 미래의 희망속에서 완전히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 삶과 시간의 존재에서 시작된 그림자와 공간의 여지, 그림자, 삶, 공간, 시간, 일직선 위에 이러한 순서를 떠올려 본다면 그림자, 삶, 공간은 모두 시간의 영향을 받게된다. 여기서 삶의 실체를 결정하고 과거의 긴 자락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간의 의미와 다시금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 해답은 시간의 편에서 삶을 볼 때 알 수 있다. 삶 앞에는 시간도 없는 법이냐, 삶이 시간을 향해 다가간다는 것은 시간이 도달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달해야 한다는 목적성을 갖는 것은 다름아닌 '이상'이다. 삶이 생겨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된 피 새김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을 거는 것, 모든 것이 '이상'에의 동경에서 시작되며 앞에 서서 다만 일직선 상에 놓인 그것들의 반복은 우리에게 본래 단련된 영속성일지도 모른다. 시간의 가까이 다가가 삶이 반사될수록 그림자는 커진다. 아직 30대의 불완전한 기억이 있다면 한 번쯤 용가네에 떠나보아야 할 것이다.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말이다. 가령 기차를 타고 서...

임수민
(서평 · 독고 1)



본문 · 화동 · 실용동 · 송동...
70여년동안 소박한 이들의 삶의 애환을 담겨주고 힘과 위로가 되었던 '국민' 소주.
양주와 같은 세월을 적음해 비싸게 만들어 줘서 외국 술을 찾게끔 유도하는 WTO, 사회적 불인의 주범이 유독 소주에다 소주세율을 높이며 한미투자협정에 굴복한 정부.
서민의 몰애도, 마음에도 황량한 비탈만 스친다.

정호정 기자

외대학부의 꿈을 싣고...

스무살 무렵은 인생의
꿈을 싣고 소망합니다.
이제 용기와 믿음을 싣고입니다.
외대학부는
고려 소망의 꿈을 가득 채워 드립니다.
아름답고 있습니다.
꿈을 외우고 있다. 외대학부입니다.
외대학부입니다.

· 대 상 : 99학번 세내기
· 기 간 : 9월 30일(목)까지
· 원서접수 : 학생회관 2층 학보사
· 전 행 : 간단한 필기시험 및 면접
· 모집부서 : 대학부 · 사회부 · 문화부 · 사진부 · 학예부
· 문 의 : 서울/961-4152, 4466 (용인) 0335-330-4152

민족자주언론
외대화보